

# 5~6世紀 榮山江流域 古墳의 性格\*

李正鎬\*\*

## 목 차

- |                      |                    |
|----------------------|--------------------|
| I. 머리말               | V. 전방후원형 고분의 등장    |
| II. 최근 조사된 주요 유적과 유물 | VI. 영산강유역 고분변천의 배경 |
| III. 옹관묘의 등장         | VII. 맺음말           |
| IV. 대형옹관고분의 발전       |                    |

## < 요약 >

대형옹관고분이 성행하던 5세기까지의 영산강유역은 나주 반남고분군을 정점으로 한 정치체로 발전하나 그 결속력은 비교적 느슨한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5세기 말을 즈음한 시기에 나주 반남지역을 제외한 광주, 함평, 영광, 해남 등지의 주변지역에서 횡혈식석실분과 함께 전방후원형고분이라는 백제 및 일본-왜-적인 묘제들이 토착요소들과 함께 복합되어 나타난다. 이는 반남중심의 통치체제가 붕괴되고 각지의 군소수장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탈되어가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처럼 반남세력의 통치력이 붕괴된 이유로는 백제가 고구려에게 패배하고 한성유역을 상실하는 등 급격히 쇠퇴함에 따라 반남고분 세력의 배후기반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옹관고분이 독자적인 1인의 분묘로 발전하지 못하였던, 비교적 느슨한 통치체제도 지배력의 붕괴를 가중시키는 요소 중 하나였을 것이다. 결국 영산강유역의 고대사회는 반남중심의 통치력의 와해와 더불어 군소수장의 세력재편을 위한 경쟁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이 경쟁이 미처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제의 정국안정, 지방에 대해 적극적인 통치정책에 의해 개별적으로 백제의 지방관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45회 추계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수정 기고한 논문임.

\*\* 동신대학교 박물관 전임교수

## I. 머리말

영산강유역에서는 기원전후부터 기원후 6세기에 이르는 기간동안 소형옹관묘, 주구토광묘, 대형옹관고분, 그리고 횡혈식석실분과 전방후원형고분 등 다양한 묘제가 존재한다. 이들 고분은 시간적인 흐름을 가지고 변천하거나 출현하였다가 소멸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독특한 고분문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다양한 고분들이 발생하고 변천하며 소멸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되었다. 고분을 말할 때, '옛무덤'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도 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고대인들의 사상과 고대사회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고분이란 죽은 자를 땅으로 되돌려 보내주거나, 회생을 기다리며 잠시 휴식을 갖는 場으로서 시작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분은 단지 죽은 자를 위한 場이 아니라, 죽은 자가 누렸던 권력을 재생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의도가 덧붙여지게 된다. 그렇다면 영산강유역의 고분은 어떠한가?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영산강유역에서는 기원전후의 소형옹관묘로부터 출발하여 횡혈식석실분과 전방후원형 고분이 등장하기까지 수차례 묘제가 변천하였다. 옹관묘와 주구토광묘, 대형옹관고분처럼 서로 교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횡혈식석실분과 전방후원형 고분과 같이 갑자기 등장하는 고분도 있다. 그 중 대형옹관고분과 횡혈식석실분, 그리고 전방후원형 고분은 영산강유역의 고대사회를 연구하는데 실마리가 되는 묘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대사회의 실체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묘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당연히 백제의 故地라고 이해해 왔던 영산강유역이 백제와는 다른 고분문화를 영위하고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런 독자적인 묘제를 영위하였던 세력이 백제일 수 없다는, 일반적인 통설에 대한 회의가 생겨났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크게 나누어 본다면, 백제의 지방세력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백제와는 거리를 둔 독립체적인 정치세력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또한 백제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였던 토착세력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견해이든 영산강유역의 고분을 축조하던 세력이 토착적인 고분양식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계속되어 조사되고 있는 고분과 당시 유적의 실상이, 백제의 그것과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5~6세기대에 영산강유역 고분이 격동적으로 변천하는 양상은 고분 피장자의 출자보다는 영산강유역의 고대사회가 겪었던 대내외적인 정세에 따른 대응행위의 산물이라고 여겨진다. 더불어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고분축

조행위가 지닌 사회성이 어우러짐으로써 그 변천이 가능하였다고 여긴다.

## II. 최근 조사된 주요 유적과 유물

### · 무안 인평고분<sup>1)</sup>

인평고분에서는 대형옹관묘와 석곽묘가 확인되었는데 합구식으로 대·소옹은 모두 전용옹관을 사용하였다. 옹관 가운데 전체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합구의 길이 225cm 정도로 조사된 2호 옹관 뿐이다. 2호 옹관은 대옹의 위치가 다른 합구식 옹관들과는 달리 경사가 낮은 부분쪽에 배치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인평고분군에서 조사된 옹관의 장축 방향은 규칙성을 찾을 수 없다. 유물은 2호와 6호 옹관에서만 수습되었는데 호형토기와 관옥 등의 옥류가 있다. 시기는 4세기 전 중반경으로 추정된다.

한편 석곽묘는 모두 9기가 조사되었다. 석곽은 수혈식 구조가 대부분이나 2호의 경우는 횡혈계의 영향을 받은 횡구식으로 확인되었다. 묘실 규모는 1m 전후의 소형과 2m 전후의 일반적인 크기로 대별할 수 있는데 묘실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일치하는 경우(1·6호)와 직교하는 경우(2~5·7·8호)로 구분할 수 있었다. 묘실의 평면형태는 모두 장방형이며 벽석은 대부분 괴석을 이용하여 가로 혹은 세로로 2~4단씩 쌓아 올렸다. 바닥시설은 시상 부분에만 판석을 깔 경우(1호), 소형할석을 바닥 전면에만 깔 경우(2~5·7호), 그리고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6·8호)로 구분할 수 있었다. 특히, 1호 석곽묘는 경사가 낮은 남쪽부분에 호석을 반원형으로 두르고, 그 주위에 주구를 만든 구조를 이루고 있어 석실의 조영과 분구의 축조방식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주구내에서는 개배와 호형토기가 수습되었는데, 토기의 밑부분이 깨어진 채 출토되고 있어 매장례 등과 관련된 자료로도 해석할 수 있었다. 출토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 청동제 이식 등이 있다. 시기는 6세기 후반경으로 추정된다.

### · 무안 구산리고분<sup>2)</sup>

구산리 고분군에서는 옹관묘 6기와 함께 석곽묘와 석실묘가 각각 1기씩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옹관묘가 밀집된 지역은 경사도가 매우 급하게 형성된 산사면부로 지금까지 확인된 관

1) 최성락 이영철 한옥민, 1999, 「무안 인평고분군」 (목포대학교박물관).

2) 「앞책」

묘들의 입지적 조건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옹관묘 6기가 밀집되어 드러난 부분은 분구로 판단되는 얇은 성토부로 주변에는 ㄷ자형의 주구가 둘러져 있었다. 분구는 조사결과 2차례에 걸친 성토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주구는 2차 분구의 성토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 분구가 만들어진 이유는 가장 낮은 레벨상에서 노출된 3호 옹관을 덮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구의 직경이 8m 정도인 원형분으로 조사되었다. 1차 분구의 주체인 3호 옹관은 구산리 고분군에서 확인된 6기 옹관 가운데 합구길이가 3m 이상으로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었으며, 유물 또한 철제대도와 철모 등의 철기류가 부장되어 있었다. 1차 분구가 완성된 이후, 다시 덧씌워 만든 2차 분구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에 가깝게 만들어졌으며, 분구 외면을 따라 주구를 두르고 있었다. 2차 분구상에는 5기의 옹관이 안치되었다. 이 5기의 옹관은 전용옹관을 이용해 합구한 경우(2호)와 전용옹관과 일상용 대호를 합구한 경우(1·5호) 그리고 대용 구연부에 할석을 쌓아 처리한 막음돌 단옹식 옹관(4·6호)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막음돌 단옹식 옹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4호 옹관의 경우는 대용의 구연부에 할석들을 수직으로 곧바로 쌓아올리는데 반해 6호 옹관은 할석을 평면 U자 형태로 둘러쌓은 형식으로 합구식 전용옹관의 평면형태를 어느 정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2차 분구상에 안치된 옹관의 선후관계는 퇴적층위를 통해 보았을 때, 분구 중앙부에 안치된 2호 옹관이 가장 먼저 안치된 다음 1호 옹관이 들어섰으며, 이후 석실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4~6호 옹관 순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4~6호 옹관은 퇴적층위 상에서 선후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석실분의 영향이 서서히 옹관묘에 미치기 시작했다는 관점에서 볼 때 5호 → 6호 → 4호 순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엿보일 뿐이었다. 시기는 1차 분구가 5세기중 후반경으로 추정되며 2차분구는 6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 · 나주 신촌리 9호분<sup>3)</sup>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일대에 위치한다. 이 고분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바 있는데 11기의 옹관과 함께 금동관, 금동신발, 금장단봉문 환두대도, 은장단봉문환두대도, 은장삼엽문환두대도, 원통형토기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된 유적이다. 평면은 방형이며 매장주체시설은 옹관으로 밝혀졌다. 주구는 최고너비 9m, 최고깊이 324cm(분구하 구지표 기준)~183cm(주구바깥 현 지

3) 국립광주박물관, 1988, 「나주 반남고분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나주 신촌리 9호분」.

표기준)로 웅덩이 모양이며 각면에 2~4개씩 불규칙하게 파여졌음이 확인되었다. 분구사면에는 원통형토기열이 확인되었다. 원통형토기는 상부가 항아리형과 화분형의 두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화분형이다. 항아리형은 원통형토기가 일반화된 일본에서도 예가 없는 것이며 원통형토기열에서 떨어져 단독으로 출토되어 주목된다. 화분형은 외형상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광주 월계동이나 명화동에서 출토된 토기와 유사하다. 시기는 5세기 후반경~말으로 추정된다.

#### · 영광 대촌고분<sup>4)</sup>

모두 4기의 석실분이 확인되었다. 1호분은 고분군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데 고분의 형태는 원형으로 크기는 직경 약 7m이며 분구 밖으로는 폭 120, 깊이 15cm 정도로 주구가 돌고 있다. 묘실은 현존하는 바닥으로 보아 분구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있고, 묘실 바닥의 장축방향은 산의 등고선 방향과 일치한다. 묘실은 구지표를 10cm 정도 파내고 축조되어 있으며 묘실 바닥의 현존 크기는 장축 3m, 단축 약 2m이다. 묘실바닥에 깔린 바닥석의 크기는 약 20cm×15cm 정도의 할석과 또 이것들의 사이에는 작은 할석을 정연히 채워져 있다. 1호분에서는 묘실의 북벽에 가까운 동벽에 붙어서 단경호 1점, 직구호 2점, 소형돌대호 1점, 개배 3세트, 철검 1점이 출토되었다. 호 4점은 모두 직립한 채로 출토되었으며 개배 3세트는 뚜껑을 아래에 두고 그 위에 杯를 올려 놓은 상태로 출토되었다.

2호분은 1호분에서 아래쪽으로 40m 내려온 지점에 위치한다. 고분의 형태는 원형으로 크기는 직경 약 7m이며 분구의 동쪽 밖으로는 폭 120, 깊이 15cm 정도의 주구가 돌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묘실은 분구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현실과 연도가 있는 횡혈식 석실분이다. 묘실의 장축방향은 산의 등고선 방향과 일치한다. 묘실은 구지표를 10cm정도 파내고 축조되어 있다. 현실의 크기는 장축 310cm, 단축 170cm, 잔존높이 50~30cm이며 연도의 크기는 길이 190cm, 폭 60cm, 현존 높이 50~30cm이다. 유물은 호 1점, 단경호 3점, 작구호 2점, 개배 8점, 방추차 1점, 유리구슬 소량, 세환식 금제귀걸이 1점, 철부 1점 등이 묘실 전면에 걸쳐 출토되었다.

3호분은 2호분에서 아래쪽으로 30m 정도 내려온 지점에 위치한다. 고분의 형태는 원형으로 크기는 직경 약 7m이며 분구의 동쪽 밖으로는 폭 120, 깊이 15cm 정도의 주구가 돌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묘실은 분구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현실과 연도가 있는 횡

4) 최성락 김건수, 2000, 「영광 학정리 함평 용산리유적」(목포대학교박물관).

형식석실분이다. 묘실의 장축방향은 산의 등고선 방향과 일치한다. 묘실은 구지표를 10cm 정도 파내고 축조되어 있다. 현실의 크기는 장축 340cm, 단축 330cm, 잔존높이 100~30cm이며 연도의 크기는 길이 190cm, 폭 60cm, 현존 높이 50~30cm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직구호 1점, 병 1점, 연결고배 1점, 단각고배 4점, 개배 21점, 금제귀걸이 태환식 1쌍, 세환식 2쌍 등 6점, 곡옥과 관옥 및 유리구슬로 이루어진 목걸이 4세트, 철도자 4점, 철부 4점, 철촉 다량, 철모 1점, 삽 2점 등 다량의 무기류와 농공구가 출토되었다. 시기는 6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 · 나주 북암리고분군<sup>5)</sup>

북암리고분은 해발 7~8m의 저기복 구릉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지역에서는 해발 5m 이하가 원래 영산강변에 펼쳐진 간석지였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북암리고분군은 거의 영산강변에 접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북암리고분군은 다양한 분구형태를 띠고 있다. 1호분은 원형으로 확인되었으며 2호분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장방형 분구를 감싸고 있는 제형 주구가 확인되었다. 3호분은 방형을 띠고 있지만 분구 주변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구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4호분은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더불어 1호분과 2호분 사이에서는 몇 기의 제형 주구와 여러 기의 옹관묘가 새로조사되었다.

1호분은 규모는 전체직경은 30m 분구직경 18m, 주구너비 6m, 분구의 높이는 4.5m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매장주체부는 분구 중심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석실 1기가 확인되었다. 현실, 전실, 연도, 묘도로 구성된 횡형석실인데 현실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바닥길이 260~253cm 너비 140~146cm, 높이 120cm이다. 전실은 현실의 남벽에 잇대어져 있는데 규모는 길이 230cm, 너비 110cm, 높이 100cm이다. 연도는 전실의 남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묘도와 천정석의 유무에 따라 구분될 뿐 평면상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연도와 묘도의 규모는 전체길이 310cm, 너비 110cm인데 그중 150~170cm의 범위를 판석 2매가 덮고 있다. 시기는 6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된다.

2호분은 당초 길이 20.5m, 너비 14.2m, 높이 4~4.5m의 말각장방형 분구만 남아있었으나 조사결과 분구의 삼면을 감싸는 ㄷ자형의 제형 주구가 확인되었다.

3호분은 주구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원래의 규모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현상으로

5) 임영진 조진선 서현주, 1999, 「북암리고분군」(전남대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나주북암리3호분」.

보아 서남부분이 약간 튀어나온 방대형에 속한다. 구지표를 근거로 산출한 분구규모는 동서 중앙이 36m, 동서최대폭(분구 남편)이 38m, 남북중앙이 37m, 남북 최대폭(서편)이 42m이다. 그리고 구지표에서부터 성토된 높이는 중앙평탄지의 서남부분이 6m이며 중앙평탄지는 400평방미터 정도로 넓은 편이다. 내부에서는 옹관 22기, 석곽옹관 1기, 횡구식석곽 1기, 수혈식석곽 3기, 횡혈식석실 11기, 횡구식석실 2기, 목관 1기 등 영산강유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묘제가 망라된 41기(분구조영 이후의 무덤수는 28기)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금동신발과 은제관식, 은장삼엽환두대도, 규두대도, 금귀고리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주된 매장주체부 중 96석실에서는 한 석실(石室)에서는 4기의 옹관이 석실내부에서 출토됨으로써 대형옹관 고분에서 초기석실분으로의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암리 3호분 내부에서는 이른시기(3세기대)에 해당하는 옹관과 함께 7세기 전반까지 내려오는 횡혈식석실분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전체적으로 약 400여년간 사용된 고분이지만 그 중심조영 연대는 5세기 후반 ~ 7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 · 해남 장고봉고분<sup>6)</sup>

해남군 북일면 방산리 신방마을에 위치한 전방후원형 고분이다. 규모는 전체길이는 약 76m이고 원형부 폭 43m, 높이 1.9m, 방형부 폭 37m, 높이 9m이고, 연결부는 폭 30m, 높이 6m이다. 조사된 매장주체시설은 원형부의 중앙에서 남서쪽으로 치우쳐 축조된 횡혈식석실이며, 봉토의 기저부에서 5m 위에 축조된 지상식이다. 석실규모는 현실의 길이가 460cm이고 너비 240~210cm, 높이 190cm로 현실의 평면형태는 서쪽이 좁은 장방형이다. 현실은 양벽을 수직으로 쌓고 두벽은 바닥에서부터 점차 안쪽으로 오므라들게 쌓아 올린 양벽조임식이다. 벽은 최하단 석과 천정석 바로 아래 부분은 판석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할석을 11~12단 쌓았고 천정석은 대형판석 5매를 사용하였다. 벽석의 틈은 황백색점토를 두텁게 발랐으며 전체적으로 주철이 되어 있다. 연도는 길이 400cm, 너비 120cm이다. 연도의 천정석은 대형판석 3매를 이용하고 벽석은 할석으로 쌓았다. 석실의 장축은 동서향이며 연도는 서쪽에 위치한다. 시기는 6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6) 국립광주박물관, 2000, 「호남고고학의 연구성과」.

### · 광주 월계동고분군<sup>7)</sup>

월계동과 쌍암동은 광주시의 중북부에 해당하는 영산강 서안에 위치하는데 월계동과 쌍암동은 남북으로 300m 정도 떨어져 있다. 마을 사이의 충적지에 장고분 2기와 원분 1기가 확인 조사되었다.

월계동 1호분은 분구가 전방후원형을 띠고 있는데 방형부가 구릉쪽에 해당하는 서북서쪽에 있고 후원부가 평야쪽인 동남동쪽을 향하고 있다. 현 표토 기준 현존 분구의 규모는 전체길이 36.6m, 후원부 직경이 16m, 높이 4.8m, 허리부 너비 10.45m 내외이고 높이가 3.3m, 전방부 전면 너비 27m, 높이 4.9m이다. 그러나 도랑 내부에서 확인된 분구의 규모는 현재의 생토면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길이 45.3m, 후원부 직경 25.8m에 달한다. 분구의 주위에서 확인된 도랑의 평면 형태는 방패형을 띠고 있는데 내곽선은 분구 끝선을 따라 장고형을 띠고 있다. 주호의 너비와 깊이는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방부와 후원부 정면에서는 너비 5.5~6.5m이지만 허리부에서는 14m에 달한다. 전방부쪽은 깊이가 얇고 후원부쪽은 깊는데 30~150cm로 일정하지 않다. 도랑과 분구 하부에서 관찰된 구지표를 고려하면 고분의 규모는 도랑을 포함하여 전체 길이는 60m 정도이다. 석실은 후원부의 남서쪽에 치우쳐 있는데 현실은 상부가 파괴되었으며 남서쪽 모서리는 바다까지 파괴되었다 현실의 앞벽은 판석을 세웠으며 나머지 현실벽과 연도벽은 할석을 쌓아 올렸다. 현실 바닥은 구지표에서 100cm정도 높이에 있으며 판석을 깔았다. 현재 남아 있는 현실의 규모는 장벽길이 440~460cm, 단벽길이 300cm이다. 잔존하는 벽석의 최고높이는 260cm에 이른다. 연도는 현실 서단벽의 중앙에서 남장벽쪽에 약간 치우쳐서 열려 있는데 잔존 길이 280cm, 너비 140cm, 최고높이 170cm이며 판석으로 된 2매의 천정석이 비스듬하게 기운 채로 남아 있다.

월계동 2호분은 1호분에서 북동북쪽으로 약 50m가량 떨어져 있다. 분구의 규모는 구지표를 기준으로 전체길이 약 28m, 후원부 직경 13.9m 내외, 높이 2.3m, 전방부 너비 11.9m, 높이 2.0m이다. 분구 주변으로는 도랑이 돌아가고 있는데 생토면에서 확인된 분구의 규모는 전체길이 34.5m, 후원부 직경 20.5m, 높이 3.5m, 허리부 너비 14.5m, 높이 1.5m, 전방부 너비 22m, 높이 3.0m 정도이다. 장축방향은 동쪽에서 북쪽으로 약간 기운 동~서인데 전방부가 구릉쪽인 서쪽에 있으며 후원부는 동쪽을 향하고 있다. 도랑은 1호분과 마찬가지로 전방부와 후원부가 좁고 허리가 넓어서 전체적으로 방패형을 띠고 있다. 깊이는 지점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1m 내

7) 임영진 조진선, 1994. 「광주 월계동 쌍암동고분」 (전남대박물관).



외이다. 매장주체부인 석실은 구지표에서 1.1m 정도 올라온 분구중에 축조되었는데 서북쪽으로 입구가 열려있다. 현실과 연도벽 모두 할석을 벽돌처럼 쌓았고 현실 바닥에 접하는 최하단 부에는 길이 150cm내외, 높이 20cm에 달하는 장대석을 놓은 부분도 있다. 현실은 길이 3.8m, 너비 2.4~2.5m크기의 장방형이고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뒷벽의 높이는 1m정도이다. 현실 바닥은 분구를 이루는 성토층 위에 길이 30cm내외, 너비 20cm내외, 두께 10cm내외의 판석을 깔았다. 연도는 현실 남벽 중앙에 축조되었는데 현실 남벽과 함께 크게 파괴되고 현실 입구 문지방석을 중심으로 길이 2.5m, 너비 1.5m 정도 남아 있다.

쌍암동고분은 분구가 경지정리와 경각으로 인하여 상당부분 훼손되어 부정형의 평면을 띠고 있지만 원래는 원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구의 규모는 현지표를 기준으로 동서직경 12.6m, 남북직경 11.6m내외, 높이 1.8m정도이다. 석실은 남아있는 분구의 북서북쪽에 치우쳐 있는데 현실의 일부만 남아있다. 석실의 바닥면은 분구 기저면에서 약 0.9m 정도 올라온 분구 중간에 마련되어 있는데 분구 기저면에 대형 판석을 세우고 그 내부를 잡석으로 무질서하게 채운 다음 바닥면을 마련하였다. 석실의 장축방향은 북쪽에서 서쪽으로 25도정도 기운 북서북-남동남인데 입구는 북서북쪽을 향하고 있다. 석실은 입구와 천정이 모두 파괴되어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남은 상태로 보면 분구와 동시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은 3벽 모두 하단에는 길이 200cm내외, 높이 100cm내외, 두께 20~30cm정도의 대형 판석을 세우고 그 위에 할석을 쌓아 올렸는데 규모는 잔존 길이 330cm, 너비 190~220cm, 잔존 최고높이 95cm이다. 월계동, 쌍촌동고분 모두 시기가 6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 · 광주 명화동고분<sup>8)</sup>

명화동은 영산강의 지류인 평동천의 상류에 위치한다. 분구의 평면형태는 전방후원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북-동남동인데 전방부가 구름으로 이어지는 북서북쪽에 있고 후원부가 평지인 남동남쪽을 향하고 있다. 분구의 규모는 전체길이 33m, 후원부 직경 18m, 높이 3.23m이상 허리부 너비 12m, 높이 1.87m, 전방부 너비 24m, 높이 2.73m이다. 도랑은 너비와 깊이가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허리부의 동쪽에서 확인된 규모는 최대너비 5.5m, 길이 0.8m이며 후원부 남쪽은 너비 1.5m, 깊이 0.4m이다. 석실은 동쪽 모서리가 후원부 중앙에 가깝게 놓

8) 박중환, 1996. 「광주명화동고분」 (국립광주박물관).

이도록 분구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데 현실의 일부만 확인되었다. 현실벽은 장대석을 하부에 세우고 그 위에 보다 작은 할석을 쌓아 올렸다 석실의 장축방향은 남동-북서이며 규모는 너비 약 180cm이고 북서쪽에 현실문을 만들었다. 시기는 6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 · 함평 신덕고분<sup>9)</sup>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신덕마을에 위치한다. 나주막한 구릉상에 위치하며 고분의 형태는 전방후원형고분으로 규모는 전체길이 51m, 후원부 직경 30m, 전방부 25m, 연결부 폭 19m이고, 높이는 자락에서 후원부 5m, 전방부 7m, 연결부 3.25m이다. 전방부는 앞이 팔자형으로 약간 벌어져 있다. 분구에는 석열과 도랑 등이 확인되었다. 석열은 분구의 중단부터 위쪽으로 약 1~1.5m 정도 쌓은 것으로, 최하단석은 대형 할석을 놓고 위쪽으로 작은 할석을 덮었으나 동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훼손되었다. 도랑은 전방부 3곳, 연결부 2곳, 후원부 3곳이 끊긴 채 분구를 따라 만들어졌으며 보고자는 도알이 끊긴 부분을 길(통로)로 보고 있다. 도랑은 고분의 형태를 따라 웅덩이모양으로 파내었는데 중앙부분이 가장 깊고 양변으로 가면서 얕아진다. 후원부 정상에서는 통형기대편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실인데 봉토와 직교하는 동서장축을 취하고 있으며, 연도는 서쪽의 중앙에 있다. 현실의 벽면은 아래쪽에 넓은 판석을 세우고, 그 위에 할석을 쌓아 올려서 만들었는데, 맞조림식으로 되어 있으며, 2매의 판석으로 천정을 덮고 있다. 연도의 입구는 문비석으로 막고 그 바깥쪽으로는 다시 막음돌을 쌓아 놓았다. 현실의 규모는 남벽의 바닥이 288cm, 북벽 299cm이고, 동벽은 239cm, 서벽은 218cm다. 연도는 길이 253cm, 폭은 안쪽이 115cm, 바깥쪽이 200cm다. 현실바닥은 할석을 고르게 깔아 평평하게 하였으며 중앙의 북쪽 부분에 치우쳐 관대가 마련되어 있다. 관대에는 관재 일부가 남아있었으며 출토유물은 개배를 비롯한 토기류와 금제이식을 비롯한 각종 장신구, 기타 마구류 등이 있다. 시기는 6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 · 함평 중랑고분<sup>10)</sup>

분구는 유실되고 주구만 확인되었다. 주구의 서쪽부분은 도로로 인해 훼손되었으나 평면형

9) 국립광주박물관, 2000. (주 6).

10) 목포대박물관, 1999.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구간 문화유적발굴조사 개요」.

태는 방형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주구의 규모를 살펴보면 너비 250~554cm, 깊이 25~125cm이며, 단면형태는 U자형에 가깝다. 바닥부의 깊이는 불규칙하며, 모서리부분의 경우는 깊이가 얕아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주구내에서는 다량의 토기류들이 출토되었는데, 호형토기와 함께 15개체 이상의 이형토기가 주구를 돌아가며 출토되었다. 이형토기는 대부분 주구의 바닥면에서 노출되었으며, 일부면에서는 2~3개체의 이형토기들이 인접되어 수습되었다. 이형토기는 절구모양을 띠고 있으며, 연질이 대부분이나 경질의 경우도 1개체가 확인되었다. 바닥면은 전면이 막아졌거나 중앙에 원형의 구멍이 뚫은 경우로 구분되며, 외면처리는 승석문을 전면에 타날한 것과 무문처리한 예가 있다. 이들 이형토기들이 주구 전면에서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주구 안쪽에 성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분구의 가장자리 부분에 배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분구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분구의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주구내변의 직경이 약 30m로 동서-남북의 규모가 거의 동일한 점을 볼 때 방형계의 분구가 성토되었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북쪽 주구내에서 옹관편과 함께 괴석들이 함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옹관묘와 함께 석실 등의 묘제가 분구에 축조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시기는 6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 · 무안 고절리고분<sup>11)</sup>

고분의 규모는 底邊 직경 39~42m, 높이 4.2~8.2m이고 평면형태는 방형이다. 매장주체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분구 정상부 중앙이 후대의 민묘조성으로 인해 교란되었고 그 주변에 석재들이 흐트러져 있는 점으로 보아 옹관고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석재의 양으로 보아 다량의 석재가 소요되는 횡혈식석실보다는 석곽계통의 주체부였거나 주체부가 미처 조성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분구의 북쪽에 치우쳐 옹관이 1기 확인되었는데 옹관은 大壺를 2개 사용하여 구연부를 맞댄 합구식이며 합구된 부분의 빈 틈은 돌을 끼워 넣었다. 규모는 장축길이 193cm이며 장축방향은 동-서방향이다. 소옹 바닥에서 단경호 1점, 소옹 내부 퇴적토 상단에서 파수가 부착된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출토되었다. 합구된 구연부에는 폭 5cm 정도로 회색 점토가 두껍게 발라져 있었다. 분구의 하단에는 말로 추정되는 동물 하악골이 확인되었다. 성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儀式的인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주구는 가장 잘 남아있는 동남쪽과 북서쪽 주구를 통해 규모는 폭 680~770cm이고 최고 깊이는 200m이며 주구의 단면형태는 U자형이다. 주구는 황색 풍화기반암을 파고

11) 목포대박물관, 2001. 「무안 고절리고분 발굴조사 약보고」.

형성되었고 네 모서리 부분은 주구를 굴착하지 않고 끊어져 있다. 주구 내에서는 연질·경질 토기편을 비롯하여 유공광구소호, 병형토기, 고배편, 개배, 기대편 등 주로 제의적인 성격을 띠는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서쪽 주구 바닥에서는 고사리 문양 장식이 부착된 기대편들이 출토되었다. 시기는 6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된다.

### Ⅲ. 옹관묘의 등장

영산강유역의 고분발생은 기원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산강유역의 고대사회는 철기시대를 거치면서 경질무문토기와 단면삼각형의 점토대를 대표유물로 하는 소형옹관묘단계가 있었다. 그러나 기원전후에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주구토광묘의 영향을 받아 토광묘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주구묘의 연대는 대략 B.C.3세기경부터 출현하여 매장주체부가 옹관으로 교체된 A.D.5세기 후반경까지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를 초기(B.C.3세기~1세기), 전기(기원전후~A.D.3세기) 중기(A.D.3세기~4세기전반), 후기(A.D.4세기전반~5세기 후반)로 분류하기도 한다<sup>12)</sup>. 그 중 영산강유역으로 파급되어 나타나는 주구묘는 전기의 단계로서, 분묘의 중심부에 토광(목관묘 또는 목곽묘)을 매장주체부로 하고, 부속적인 형태로서 매장주체부의 주변이나 매립된 후의 도랑내부에 옹관을 안치하기도 하였다. 잠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발굴조사되어 보고된 함평 순촌유적에서는 50기 이상의 토광묘와 옹관묘가 확인되었고 또한 주구가 30기 이상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들 주구의 중심적인 매장주체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토광묘 12기, 옹관묘 1기이며 나머지는 모두 추가장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주구묘에서는 토광묘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하다. 그런데 영산강유역에서 이처럼 매장주체부가 잘 남아 있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영산강유역에서 많은 주구묘가 조사되었으나, 중심적인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지 않아 토광묘일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근래 순촌유적의 발굴조사로써 그 예측이 타당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주구묘의 분류안 중, 주구묘의 전기를 '주구토광묘'라 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는 용어일 것이다. 나아가 옹관묘 또는 옹관고분과의 관계만 명확히 설정한다면, 오히려 더 적절한 용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주구묘의 중심적인 매장주체부는

12) 최완규, 2000. [호남지방의 분묘유형과 그 전개] 「호남지역의 철기문화」 (호남고고학회).

순춘유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광묘가 월등한 비율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토광묘로 한정되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외견상으로는 그렇다. 그렇다면 옹관이 매장주체의 중심을 이루는 순춘유적 A-32호주구묘를 잠시 검토해 본다.

순춘A-32호 주구묘는 짧은 사다리모양을 띤 주구를 가지고 있고 그 내부에는 독특한 모습을 한 합구식 옹관이 중심적인 매장주체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일상용의 壺와 크게 다르지 않은 소형의 합구식옹관이 중심주체부의 옹관과 같은 방향으로 길게 놓여 자리잡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매장된 것이다. 옹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편과 단조철부 등이 수 점 출토되었고 옹관 바깥쪽의 대옹 구연부에 붙여서 이중구연호가 부장되어 있었다. 그 중 관심을 끄는 것이 옹관의 형태이다. 옹관의 기형을 보면 대옹이 풍만한 U자모양이고 소옹은 넓은 V자모양을 이루고 있다. 옹관의 구연에는 대옹의 경우 소옹을 삽입할 수 있도록 밖으로 꺾어 넓혔으며 소옹은 구연부 삽입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돌대를 둘렀다. 그리고 동체부에는 두 옹관 모두 넓은 ♥모양의 창을 만들었고 창을 위한 덮개를 따로 제작하여 매장할 때 덮어 두었다. 옹관 저부는 대옹의 경우 별도의 흔적이 없으나 소옹에는 원판상의 돌기로 이루어져 있다. 부장유물 중에는 구연부 바깥쪽에 놓인 이중구연호가 있는데, 바닥이 약간 들린 평저이고 어깨에는 작은 꼭지가 붙어있는 황갈색을 띤 연질토기이다. 옹관의 형태는, 저부의 돌기를 제외한다면 지금까지 조사례가 없는 독특한 모습이다. 순춘유적에서는 출토된 15기의 옹관 중 이 옹관과 관련지을 만한 옹관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옹관의 사용연대를 말하기에는 다소 곤혹스러운 면도 없지 않으나 부장된 이중구연호의 저부가 평저이고, 옹관내부에서 출토된 철부 중 뚜렷한 어깨를 가진 유견형철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늦은 시기는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옹관이 U자모양에 가까운 발달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너무 올려 보는 것도 곤란하다. 따라서 이 옹관의 연대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 중 어느 시기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토광묘와 옹관묘와의 관계이다. 토광묘를 중심주체부로 하는 주구묘의 경우, 추가장이 이루어 질 때는 토광을 추가하거나 옹관을 추가하게 된다. 토광묘를 추가하는 경우도 많으나 옹관을 추가하여 매장하는 것도 적지않게 나타난다.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로만 볼 때 토광과 옹관의, 추가장에 있어서 선후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매장주체부가 토광묘인 점을 고려한다면, [중심토광+추가토광]인 것이, [중심토광+추가옹관]의 형태보다 이르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순춘유적에서 추가장이 이루어진 것은 대개 [중심토광+추가옹관]의 모습이다. 이 유적에서 추가장으로 매장된 옹관

은 일상용의 壺에 가까운 것도 많으나, 이른바 선황리식이라고 하는 옹관이 주를 이룬다. 이 옹관은 대체로 넓게 바라진 구연과 뚜렷한 어깨를 가지고 있으며 동체는 뽀족하게 좁아지고 원관상의 돌기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그 시기는 3세기경을 중심으로 하며 부분적으로는 2세기 후반경까지 소급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주구묘가 토광묘에서 옹관묘로 이행하는 순서는 [토광묘]→[옹관묘]이라는 기본흐름이 있으며, 그 속에는 [토광묘+토광묘]→[토광묘+옹관묘]라는 이행과정도 함께 존재한다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묘제의 이행이 왜 일어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주체부가 목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붕괴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식되지 않는 옹관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시되고 있다<sup>13)</sup>. 그러나 옹관으로의 이행이 영산강유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만수리4호분이나 신연리9호분과 같이 시기가 늦고 규모가 발전된 고분에서도 토광을 주체부로 하고 옹관이 추가되는 예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 IV. 대형옹관고분의 발전

옹관고분은 크게 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각각 제Ⅰ유형, 제Ⅱ유형, 제Ⅲ유형으로 명명한다.

옹관Ⅰ유형은 목에서 구연까지 다소 벌어진 점, 목이 뚜렷이 성형된 점, 거치문이 목부분에 있는 점, 저부에 돌기가 있는 점 등이 특징이다. 분구는 원형 또는 방형계(제형포함)이며 규모는 원형의 경우 10m내외로 한정되며 방형 또는 제형의 경우에도 너비는 거의 10m를 상회하지 않는다. 축조방식은 평지나 나즈막한 자연구릉의 정상부를 이용하여 옹관을 거치할만한 구덩이를 약간 파낸 후 옹관을 안치하고 그 위에 분구를 축조하는 이른바 반지하식의 축조방식을 보인다. 또한 분구의 주변에 도랑을 설치하여 묘역을 확보하며 토광과 병행하기도 하나 점차 주된 주체부로 자리잡기 시작하는 유형이다. 이 시기의 고분은 영암 옥야리 14호분을 표식으로 하며<sup>14)</sup> 나주 복암리 최하층에서도 확인되었다<sup>15)</sup>. 한편 인평고분군 1호 토광묘와 같이 토광묘를 매장주체부로 하는 형태도 확인되고 있으나 분구주위에 도랑을 설치한 점 등은 이 단

13) 임영진, 2001. [고분을 통해 본 1-2세기의 호남지역] 「동아시아 1-3세기의 주거와 고분」(국립문화재연구소).

14) 최성락 조근우, 1991. 「영암옥야리고분」(목포대학교박물관).

1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나주 복암리 3호분」.

계의 옹관고분과 동일하다.

옹관Ⅱ유형은 분구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데 규모가 50m에 이르는 것도 있다. 그러나 분구의 형태가 정형화되지 않고 장타원형 또는 제형을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다. 옹관매장이 분구의 장축을 따라 이어지는 정상부를 지향하고 있고 분구의 축조방식이 돌출된 자연구릉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대형화를 꾀하였다. 분구의 주변에 도랑을 둘러 묘역을 경계짓는 점 등은 I유형의 고분을 계승하나 보다 확대되고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 또한 신연리 9호분과 같이 매장주체부가 토광과 옹관이 혼용되거나 토광묘가 주체적인 위치를 갖는 것도 보인다. 옹관 I유형에서 보이는 토광묘가 이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주 북암리 3호분의 일부 옹관 중에는 그 초기형태를 보인다고 생각되는데, 옹관형식은 목이 남아있고 거치문이 목부분에 있고 저부에 돌기가 있는 등 I유형의 옹관에 가까우나 복수의 옹관이 매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II유형에 진입하는 단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옹관Ⅲ유형은 반남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하는데 전형적인 U형의 옹관이 주류를 이룬다. 분구형태는 방형, 방대형, 절두원형, 세장형 또는 마름모형 등 다양하다. 일견 분구 형태가 난립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나, 어떤 형태이든 정형화된 분구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길이와 너비가 공히 10m~50m의 범위에서 거의 1:1의 비율을 이룬 점, 축조방식에 있어서 자연구릉을 이용하는 정도가 전단계에 비해 낮아지고 토축의 비율이 높아진 점 등이 특징이다. 이 단계의 고분은 신촌리 9호분을 비롯하여 덕산리 3호분, 4호분, 대안리 9호분 등이 있다. 한편 II유형의 분구특징을 계승하여 분구형태가 정형화하지 못한 것도 잔존하는 데 신촌리 6호분이 그 예이다. 또한 경사가 심한 산사면에 입지하면서 축조시 L자형으로 삭토하여 묘역을 구획한 후 옹관을 안치하고 다시 봉토를 하나 분구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서 무안 구산리 옹관고분이 있다<sup>16)</sup>.

한편, 영산강유역의 옹관고분은 전용옹관의 합구식을 기본형태로 하나 전용옹관과 대형호의 조합, 돌막음 옹관도 나타난다. 그 중 돌막음 옹관은 나주 북암리3호분, 무안 구산리고분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하나는 한 기의 옹관을 단옹으로 사용하고 그 입구를 판석 1매나 소형괴석, 기타 잡석으로 막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합구식 옹관을 사용하면서도 한쪽 옹의 저부를 일부러 구멍내어 소형 판석으로 막아놓은 형태가 있다. 전자에서 판석을 사용한 경우 판석만을 사용하지 않고 판석 하부의 기저부를 괴석으로 한 두단 쌓은 후 판석을 세우는 형태

16) 최성락 이영문 이영철, 1999, 「무안인평고분군」 (목포대학교박물관).

도 보인다. 북암리고분의 돌막음 옹관이 이 형태에 속한다. 그리고 구산리옹관고분의 경우 소형괴석이나 잡석을 옹관입구에 반원형으로 쌓아 내부의 공간을 확보한 형태도 나타난다.

그런데 영산강유역의 옹관은 옹관Ⅰ유형 단계부터 위계를 표현하는 고분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제Ⅱ유형, 제Ⅲ유형의 단계를 거치면서 고분간의 분화가 심화된다<sup>17)</sup>. 그 중 제Ⅲ유형의 단계에 이르면 나주 신촌리 6호분, 9호분, 덕산리 3호분, 4호분, 대안리 9호분, 무안구산리옹관 고분 등과 같이 기존 옹관고분과는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이 나타난다. 옹관Ⅲ유형의 유구와 새롭게 나타나는 유물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옹관Ⅲ유형 출토유물일람

유적·유구명	이기류	장신구류	기타	비고
신촌리9호분갑관	철축2	금환1		
신촌리9호분을관	은장도자1, 철부1, 톱1, 은장원두도자1, 동제원두찌르개1, 철축32, 창1, 삼지창1, 옹봉문환두대도1, 은장삼엽문환두대도1, 은장삼엽문환두도자1, 대도1	동팔찌1, 금환1, 금령2, 은령2, 금귀거리1쌍, 금동관1, 금동신발1쌍, 은판1	화살잔편1포, 대궁1	
신촌리9호분병관	대도1, 철축36, 꺾쇠4	귀고리1쌍, 금동제반구형장식4, 금동제장식금구1		
신촌리9호분정관	철축10내외	금귀고리1쌍		
신촌리9호분경관	철축14, 대도	금환1쌍, 팔찌3, 은제공옥2	원통형토기 1쌍	
신촌리9호분신관			원통형토기 2개	
신촌리9호분임관			원통형토기 1개분	
신촌리9호분계관		금환2	판자매, 패각3개	
대안리9호분갑관				
대안리9호분을관	철편, 칼집장식1, 대도1	금환1쌍, 은제화형금구1		
대안리9호분병관	철축			
대안리9호분무관	철부1, 철축1, 단도1			
대안리9호분기관	금동관금구2, 소환두대도1, 대도1, 철축다량	금환1		
대안리9호분경관	철축다량, 대도, 녹각제 직호문도자병	금환, 동천3		
덕산리3호분병관	철축10이상, 철못, 꺾쇠	금동장신구	목관	
덕산리4호분을관	철못	금환, 동천1		
덕산리4호분갑관	대도1, 철축다량, 철못, 꺾쇠, 철부1			
신촌리6호분을관	대도1, 소도1			세장형 (사다리형)
신촌리6호분무관	철축1, 옹도미상철기1	청동환1	판자(관)재	
구산리고분 3호분	대도, 철모			산사면입지

17) 이정호, 1996. [영산강유역 옹관고분의 분류와 변천과정의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한국상고사학회)22.



출토유물은 백제계 또는 왜계의 구분이 매우 모호한 부분도 있으나 무기류나 장신구의 조합상, 관못과 같은 목관사용흔적이나 꺾쇠와 같은 목제시상의 사용 등은 백제의 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18)</sup>. 또한 녹각제 직호문도자병, 원통형토기 등 왜계의 유물도 확인할 수 있으나 백제계가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백제계나 왜계의 유물부장은 상당히 제한된 형태로 나타난다. 신촌리 9호분에서는 다수의 백제계와 소수의 왜계가 모두 확인되고 대안리 9호분, 덕산리 3호분과 4호분에서는 백제계로 평가할 수 있는 유물만 부장되거나 이기류나 장신구류 등에서는 신촌리9호분과 동일한 조합상을 보인다. 그러나 신촌리6호분과 구산리3호옹관에서는 대도나 철촉, 철모 등이 1점 정도로 한정되어 나타나며 장신구류도 신촌리6호분 戊棺에서만 청동환 1점이 출토되었을 뿐이다. 또한 신촌리 6호분은 분구가 정형을 이루지 못하고 제Ⅱ유형의 분구특징을 유지하고 있으며 옹관의 안치도 분구의 중심에 모아지지 않았다. 구산리고분은 고분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삭토하여 묘역을 마련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있으나 입지지형이나 분구의 규모상 다른 고분들과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빈약한 예이기는 하나 이를 통해 옹관Ⅲ유형의 단계에서는 분구규모나 형태와 부장유물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옹관Ⅲ유형의 단계에는 전 단계와 달리 백제와 왜와 관련된 외부요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고분 전반에 미치지 않고 한정된 고분에서 독점적으로만 나타나는 계층성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 단계의 옹관에서 나타나는 것이 철못과 꺾쇠, 목관이나 시상판재의 흔적이다. 이 유물들은 기본적으로 백제지역의 석실분 또는 수혈식석곽묘에서 목관이나 시상판재를 가구하는데 사용되던 것이다. 기존 옹관의 경우도 목관이나 시상판재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사용되었더라도 철못이나 꺾쇠를 사용하지 않은 형태로 생각되며 아직 그러한 흔적은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이 단계의 옹관에서 출토되는 철못, 꺾쇠, 그리고 이로써 가구된 목관이나 시상판재는 옹관묘제에 부분적으로 백제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있었다고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옹관고분 말기가 되면 옹관 조합방식의 변화도 보이게 되는데 돌막음 옹관이 그것이다. 돌막음 옹관은 나주 북암리3호분, 무안 구산리고분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구성소재로 볼 때 석실분 또는 석곽묘와 관련된 것이다. 한편 현재의 자료로서는 추측에 불과하지만 판석조의

18) 이들 유물, 특히 신촌리 9호분출토 금동관, 환두대도 등 금동장식무기류들을 백제계로 보는 일반설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나 유물전반의 조합상과 이러한 조합상의 백제지역 출토례, 유물양상의 대세 등으로 보아 백제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돌막음과 기타 석재로의 돌막음이 다소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않다. 북암리 3호분이나 구산리 옹관고분에서는 돌막음 옹관은 주매장시설에 속하지 않고 추가매장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북암리3호분의 경우 이미 석실분이 축조된 후 그 주변에 이들 돌막음 옹관이 산재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구산리의 경우 3호옹관이 안치된 후 이 옹관을 피해 주변을 감싸는 형태로 돌막음 옹관이 배치되어 있다. 역시 계층성을 엿볼 수 있다.

## V. 전방후원형 고분의 등장

현재까지 밝혀진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형 고분 요소들로만 볼 때 전방후원형 고분의 축조는 영산강유역의 토착수장세력이 주체가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고분의 분형자체의 모델이 일본지역인 만큼 왜와의 관계는 상당히 깊은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짐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짚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전방후원형 고분의 공간적 위치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암 자라봉고분, 함평 신덕고분, 광주 월계동고분 등은 기존에 성립된 고분군과 동일한 권역내에 위치한다고는 하나 다소 거리를 두고 있으며 해남 말무덤고분 등과 같은 경우 주변지역에서 고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고립적인 위치에 축조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 고립성은 규모에서도 나타난다. 전방후원형 고분의 거의 대부분은 일본의 전방후원분에 비해서 작기는 하나 토착계의 고분보다는 훨씬 대형이기 때문이다. 만약 전술한 바와 같이 전방후원형 고분이 토착수장세력에 의해서 축조되었음이 틀림없다면 공간적 고립 그리고 규모적의 고립으로써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분묘공간, 기존 분묘규모와의 차별성을 시도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추론이 타당하다면 이 시기 전방후원형 고분을 축조한 토착수장세력의 정치적 권력이 전에 비해 한층 확대되는, 즉 나주 반남세력과 같은 중심세력로부터 규제되지 않는 자유로운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횡혈식석실분의 등장과 동일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sup>19)</sup>.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방후원형 고분의 분형일 것이다. 몇 차례 분형의

19) 그러나 횡혈식석실분(전방후원형 고분도 포함한)의 기원 계통에 대해서는 이론도 있다.(임영진, 2000. [영산강유역 석실봉토분의 성격]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새로운 조명」(역사문화학회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요지))

분석에 대한 시도는 있었지만<sup>20)</sup> 아직 이 지역 전방후원형 고분에서는 계통적 관계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당시의 전방후원형 고분의 채용이 일과성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르게 보아 5세기 후반경부터 새롭게 등장한 전방후원형 고분은 6세기 중반경에는 급격히 사라졌다는 매우 짧은 시간폭, 다시말하면 길게 잡아 70년정도, 짧게는 50년정도의 시간폭 안에서는 계통적인 관계까지는 추출해내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축조구조나 설계에 따른 계획성은 보여야 할 것이라 생각되나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처럼 짧은 기간에 축조된 고분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유역 전역에 산재하여 나타나고 있는 점은 전방후원형 고분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경쟁적으로 축조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방후원형 고분의 규격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어떤 단일한 고분모델을 두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축조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더불어 단축시설이나 돌출부(造出し)가 보이지 않는 등의 특징은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 고분이 다만 전방후원형이라는 분형만 따를 뿐, 모든 속성을 따르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이처럼 전방후원이라는 분형을 채용하고 분구의 장식을 위해 원통형토기를 장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세품은 백제나 가야계의 것으로, 그리고 일반유물은 토착계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전방후원형 고분의 피장자가 영산강유역의 토착수장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전방후원형 고분의 등장은 신촌리 9호분 단계를 기점으로 나타나는 묘제 및 부장유물의 외래적 요소 출현과 연이어 보이는 석실분의 등장 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토착묘제에 외래문물의 도입이라는 유행이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영산강유역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의문으로서 남게된다. 아마도 전방후원형 고분은 횡혈식석실분과 함께 영산강유역 각지에 존재하던 토착세력들이 나주 반남세력의 붕괴와 함께 외래묘제 및 그 구성요소를 경쟁적으로 채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피장자를 직접 보호하는 매장주체부는 백제 중심세력의 주요제인 횡혈식석실분으로 사용하고 외래의 위세품을 부장함으로써 그 권위를 계승하고 있음을 과시하며, 전방후원형 고분을 분구로 축조함으로써 수장묘의 차별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전방후원형 고분은 그 형태와 규모, 하니와를 이용한 분구장식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이며 고분축조

20) 성낙준, 1993, [전남지방 장고형고분의 축조기획에 관하여] 「역사학연구」(역사학연구회)12.  
박중환, 1996, 「앞책」(주 8).  
岡内三眞 編, 1998, [前方後円形墳の築造モデル] 「韓國の前方後円形墳」(東京:雄山閣出版).

가 지배력보전과 재생산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던 당시의 토착수장세력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템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VI. 영산강유역 고분변천의 배경

영산강유역에서 조사된 초기의 횡혈식석실분은 나주 송제리석실분, 북암리 3호분 96석실, 영광 대천리고분군, 해남 장고산고분, 장성 영천리고분, 함평 신덕 1호분, 광주 월계동 1, 2호분, 쌍암동 석실분, 명화동고분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석실분은 이른바 궁륭상 또는 양벽축약식(맛조임식)이다. 이러한 영산강유역의 초기 횡혈식석실분에 대해 북구주지역 기원설<sup>21)</sup>, 백제 중앙세력횡혈식석실과의 차이를 강조한 지방양식설<sup>22)</sup> 등이 있다. 그러나 금강유역의 보통골4호분<sup>23)</sup>, 신기동 고분<sup>24)</sup>, 남원 초촌리 10호분<sup>25)</sup>, 고창 상갑리 M1호 석실분<sup>26)</sup> 등 시기적인 차이는 있으나 서로 상사성을 엿볼 수 있는 고분이 없는 것은 아니며 석실분이라는 기본 모티브를 고려할 때 백제 횡혈식석실분과 관계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영산강유역 초기 횡혈식석실분과 유사한 關行丸古墳<sup>27)</sup>, 塚堂古墳<sup>28)</sup>, 番塚古墳<sup>29)</sup> 등 일본 북부구주지역에서 나타나는 초기 횡혈식석실분과 영산강유역 초기 횡혈식석실분 사이에 인정되는 친연성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자료로만 볼 때 영산강유역의 횡혈식석실분 등장은 백제와 왜라는 주변지역 묘제가 복합되어 나타난다고 일단 말해두고 싶다.

한편 이들 횡혈식석실분과 더불어 등장하는 전방후원형의 분구형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자료로만 한정해 볼 때 영산강유역에서 자체 기원을 둔 분구형태라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 
- 21) 홍보식, 1993. [백제 횡혈식석실의 형식분류와 대외전파에 관한 연구] 『박물관연구집』, (부산시립박물관)2.
- 22) 吉井秀夫, 1997. [횡혈식석실의 수용양상으로 본 백제의 중앙과 지방] 『백제의 중앙과 지방』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임영진, 1997. [전남지역 석실봉토분의 백제계통론 재고] 『호남고고학보』 (호남고고학회)6.
- 23) 頸部慈恩, 1933. [公州における百濟古墳 3] 『考古學雜誌』 24-3. (日本:考古學會).
- 24) 안승주, 1968. [백제고분의 연구] 『백제문화』,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2.
- 25) 전영래, 1981. [남원초촌리고분군발굴조사보고] 『전북유적조사보고』12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 26) 전영래, 1992. [고창 상갑리, 죽림리 석실고분] 『고창 죽림리일대 지석묘군 지표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27) 佐賀市, 1958. 「佐賀市關行丸古墳」 佐賀市文化財調査報告書7 (佐賀:佐賀市教育委員會).
- 28) 馬田弘捻, 1983. 「塚堂遺跡I-浮羽バイパス關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I」 (福岡:福岡縣教育委員會).
- 29) 九州大學考古學研究室, 1993. 「番塚古墳」 (福岡).

런 전방후원형 고분은 당시 왜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형 고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유적은 영광, 함평, 광주, 해남 등 나주 반남의 주변부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방후원형 고분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주변에 전시기의 옹관고분이나 토광묘와 동일한 권역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함평 신덕고분은 고분이 위치한 곳으로부터 동남으로 200m 떨어진 지점에 예덕리 만가촌고분군이라고 하는 보다 이른 시기의 옹관 또는 토광묘가 분포하고 있으며 해남 장고산고분 역시 주변지역에 많은 고분이 분포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영암 자라봉고분은 동일한 권역에서 태간리옹관고분이 조사된 바 있으며 함평 죽암리 장고산고분 역시 주변에 동일시기의 주거지군이 중량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처럼 전방후원형 고분 주변에 이전 시기의 고분 또는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양자사이에 계승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방후원형 고분의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실이다. 이 석실은 구조상 6세기 중반이후의 사비식석실로 이행하는 과정의 모든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 현문시설을 갖춘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연도부 천정을 갖춘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평면 방형과 장방형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 고분의 석실 역시 제Ⅱ단계 옹관고분<sup>30)</sup> 이래 지속적으로 남아있던 지상형 매장주체부를 이룬다는 사실은 이 지역 전방후원형 고분이 전통적인 요소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더불어 전방후원형 고분의 유물부장은 후장적인데 함평 신덕고분의 경우 백여점 이상의 유물이 다량부장되고 있다. 따라서 영산강유역의 고분은 박장의 옹관고분 → 후장의 옹관고분 → 후장의 초기 횡혈식석실분 및 후장의 전방후원형 고분 → 후장 및 박장의 사비식 횡혈식석실분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31)</sup>. 더불어 하나와을 모방한 원통형토기가 이미 후장의 모습을 보이는 옹관고분인 신촌리 9호분에서부터 다량 확인되고 있어서 묘제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형 고분은 횡혈식석실분과 함께 영산강유역 토착세력이 기존의 묘제전통을 바탕으로 외래요소를 수용해 나가던 과정의 한 단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듯 토착묘제에 외래적 요소가 결합되어가는 과정은 6세기 중반이후에도 지속된 듯 하다. 나주 북암리 3호분에서 그 면모의 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 3호분은 초기의 횡혈식 석

30) 이정호, 1999. [영산강유역의 고분 변천과정과 그 배경], 「나주지역 고대사회의 성격」, (나주시 목포대학교박물관).

31) 「앞책」

실인 96석실이 축조된 후 분구가 확장되면서 사비식 석실이 다수 들어선다. 그 중 제5호석실에서는 백제의 관리가 착용하였다고 하는 은제관식이 부장되어 있는데 이 은제관식은 백제의 지방편제에 편입된 시기의 부장품이다<sup>32)</sup>. 이 은제관식은 가장 늦은 시기인 제16호분에서도 출토되고 있어 적어도 제5호석실분 시기 이후 북암리일대에 존재하던 세력은 이미 백제의 지방편제에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인 96석실이 안치된 분구를 지속적으로 계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들 사비식석실의 피장자들은 백제로부터 이곳에 파견된 지방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을 말해준다. 이 석실들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고분에서는 사비식 석실이 모두 11기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은제관식이 2개소에서 출토되었다. 제5호석실에서는 은제관식과 함께 철심관모, 금동이식, 은제과대교구, 규두대도, 금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제16호 석실에서는 은제관식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층위상 5호석실과 16호석실 사이의 어느시기에 위치하는 제7호석실에서는 귀면문삼환두대도, 규두대도, 금제관식 등, 앞 뒤에서 보이는 은제관식과는 차이를 느끼게 하는 위세품들이 출토되었다.

은제관식으로 상징되는, ‘파견된 지방관’의 모습과 동시에 출토되는 장식대도, 금사, 금제관식 등 위세품은 보기에 따라서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암리 3호분 사비식석실분의 피장자들은, 은제관식으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백제로부터의 지방관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출자는 토착계 피장자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더 나아가 웅관고분 이후의 토착세력들이 그 지배력을 백제로부터 위임받아 존속하였던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이런 예가 당시 백제지역에서 일반적인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6세기 후반에도 토착 수장세력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북암리 3호분을 통해 초기 횡혈식석실의 등장, 당시 이 지역의 상황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북암리3호분에서는 횡혈식석실분이 축조되기 이전, 4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웅관고분이 동일분구내에서 확인되었고 역시 고분 주변에는 소형의 초 전기 웅관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또한 북암리를 둘러싼 일대의 구릉지역에서 중·대형급고분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반남지역과 같은 집약된 대형 웅관고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북암리 고분세력의 위상이 반남고분군만한 위상을 가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횡혈식 석실이 등장하는 시기가 되면 역전된 듯 하다. 북암리고분의 경우 96석실이 등장하는 시

32) 이남석, 1990. [백제 관제와 관식] 「백제문화」 (공주사대백제문화연구소)20.

점에 출토유물 등에서 이전시기와 다른 비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좀더 범위를 확대해 보면, 초기 황혈식석실분을 매장주체부로 하는 고분은 대부분 반남지역을 벗어난, 나주 북암리, 송제리를 비롯한 근린 외곽지역으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대형옹관고분이 밀집한 반남고분군에서는 초기 황혈식석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석실의 축조가 6세기 중반이후의 사비식 석실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는 반남 중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탈되어가는 상황을 보여준다. 즉 5세기말~6세기 전반에 반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던 세력의 위상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몇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고구려의 남하와 한성유역 상실으로 인해 남천한 백제가 한강유역에서 상실한 영토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의 확보책으로 반남세력의 정치적 통합력을 와해시켰을 것<sup>33)</sup>, 그리고 두번째는 반남 고분군세력이 백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이를 배후기반으로 영산강유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백제가 고구려에게 패배하고 한성유역을 상실하는 등 급격히 쇠퇴함에 따라 반남고분 세력의 배후기반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첫째의 새로운 영역의 확보책으로 반남세력의 정치적 통합력을 와해시켰을 것이라는 가설은 신촌리 9호분의 묘제와 위세품을 비롯한 출토유물, 그리고 다음 단계에 등장하는 황혈식석실분의 묘제와 위세품을 비롯한 출토유물상에서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자료로서는 매장주체부가 옹관에서 황혈식석실로 변화하였다는 점 이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출토유물에 있어서는 이미 신촌리 9호분 시기부터 질적 변화가 시작되며 그 종류에 있어서도 백제계, 왜계를 망라하고 있다. 그리고 황혈식석실분에서도 전방후원형 분구를 비롯한 위세품의 계통이 백제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첫 번째의 가설이 성립되기 어렵게 한다. 한편 토착세력의 재편이라는 두 번째 가설도 향후 고고학적, 역사적 자료의 증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전자와 반대로 신촌리 옹관고분의 묘제적 속성이 초기 황혈식석실분 등장기에도 지속되는 점, 각종 외래유물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없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반남지역을 정점으로 하던 사회체제가 붕괴되고 각지에 중소 수장세력이 발흥하는 세력간 재편양상이 벌어졌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백제가 고구려의 남하에 따라 개로왕이 현지에서 사망하고 한강유역을 상실하여 웅진으로 내려오는 침체기였다. 또한 웅진천도 이후에도 한동안 국가운

33) 박순발, 1999, 「백제의 남천과 영산강유역 정치체의 재편」 「한국의 전방후원분」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영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이 시기는 영산강유역에서 금동관으로 표상되는 신촌리 9호분이 조영되던 시점이자 잠시 후 주변지역에서 황혈석식실분이나 전방후원형 고분이 등장하는 시점과 일치한다. 즉 반남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세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 붕괴되어 주변 각지의 수장세력이 발흥하게 된 것이다. 백제는 동성왕대(479~500)에 국정을 잠시 추스리고 탐라정벌을 위해 무진주까지 내려오는 등 외부에 눈을 돌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를 전후하여 토착세력의 위상은 신촌리 9호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금동관을 부장할 만큼 최고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왕이 탐라정벌을 위해 무진주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sup>34)</sup> 반남의 토착세력이 백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정치체가 아닌, 백제의 사회질서내에 들어가 있던 반독립적 세력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동성왕이 가림성주(加林城主) 백가(苜加)에 의해 피살되는 등 아직 확고한 정국 안정을 얻지는 못하였다<sup>35)</sup>. 백제의 위임 아래 반독립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이를 배후기반으로 주도하던 반남지역의 고분세력도 이러한 백제의 혼란한 정국에 따라 배후기반이 약화되었을 것이고 황혈석식실분과 전방후원형 고분에서 볼 수 있는 군소수장세력의 발흥이 일어난 계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영산강유역의 지역수장간의 세력경쟁은 미처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차 백제의 정국이 안정되고 지방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침에 따라 6세기 중반 이후에는 영산강유역 각지의 토착세력들이 백제의 지방관으로 흡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Ⅶ.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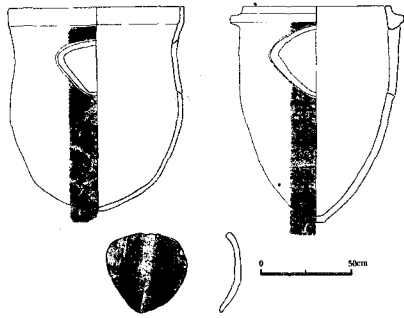
대형옹관고분이 성행하던 5세기까지의 영산강유역은 나주 반남고분군을 정점으로 한 정치체로 발전하나 그 결속력은 비교적 느슨한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5세기 말을 즈음한 시기에 나주 반남지역을 제외한 광주, 함평, 영광, 해남 등지의 주변지역에서 황혈석식실분과 함께 전방후원형고분이라는 백제 및 일본-왜-적인 묘제들이 토착요소들과 함께 복합되어 나타난다. 이는 반남중심의 통치체제가 붕괴되고 각지의 군소수장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탈

34) 동성왕의 탐라정벌 기사에 대해서는 문주왕대(476)에 탐라국이 방물(方物)을 바쳤으나(「三國史記」百濟本紀 文周王2年條)과 동성왕대(498)에 供物을 바치지 않아 親政한다는 기사내용이 서로 인과관계로써 성립한다고 보이므로 당시의 정벌대상을 탐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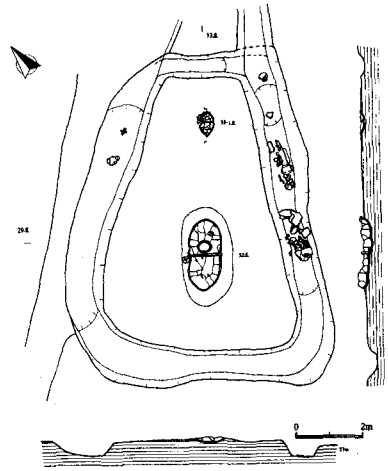
35) 「三國史記」百濟本紀, 東城王23年條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서울:일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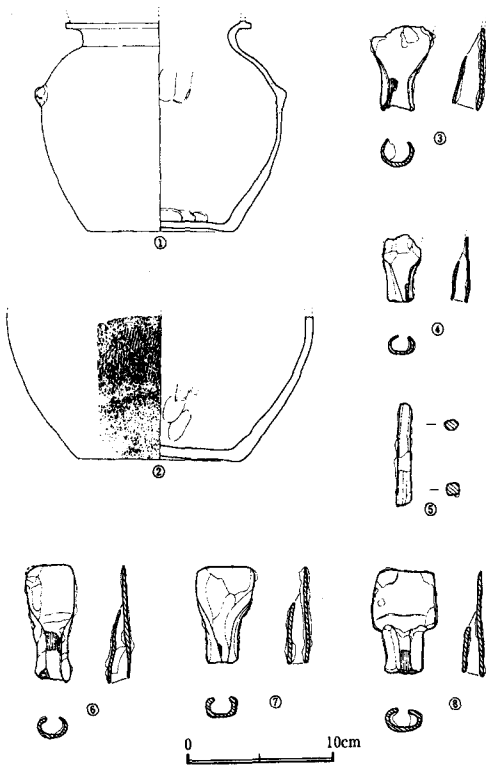
되어가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처럼 반남세력의 통치력이 붕괴된 이유으로써 한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형옹관고분 사회의 최성기라 할 수 있는 나주 반남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목관, 토기 등의 백제적인 요소와 원통형토기 등의 일본-왜-적인 요소로 보아, 이 시기 반남세력의 주도로 외부세력과의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배경으로써 '고대국가로 성장한 백제'라는 시대적 정황을 생각한다면, 이미 이 시기에는 반남세력과 백제가 정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반남지역의 대수장세력은 백제를 배후기반으로 영산강유역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백제가 고구려에게 패배하고 한성유역을 상실하는 등 급격히 쇠퇴함에 따라 반남고분 세력의 배후기반이 약화되었을 것이다. 더불어 대형옹관고분이 독자적인 1인의 분묘로 발전하지 못하였던, 비교적 느슨한 통치체제도 지배력의 붕괴를 가중시키는 요소 중 하나였을 것이다. 결국 영산강유역의 고대사회는 반남중심의 통치력의 와해와 더불어 군소수장의 세력재편을 위한 경쟁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이 경쟁이 미처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제의 정국안정, 지방에 대해 적극적인 통치정책에 의해 개별적으로 백제의 지방관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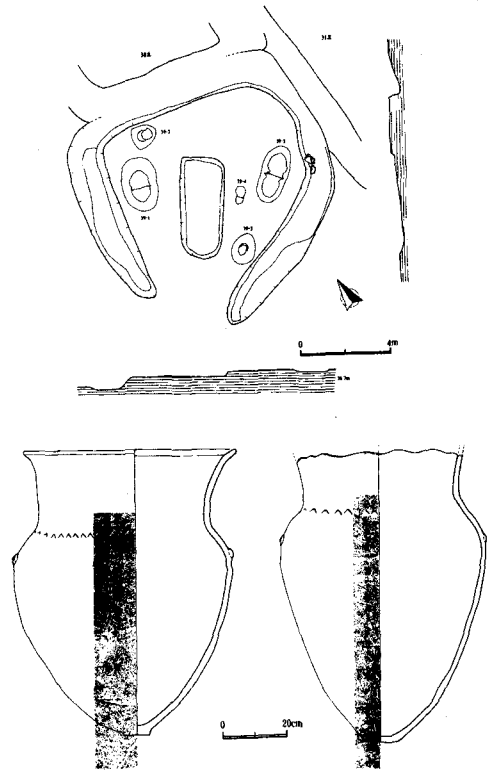
〈그림1〉 함평순촌유적A-32호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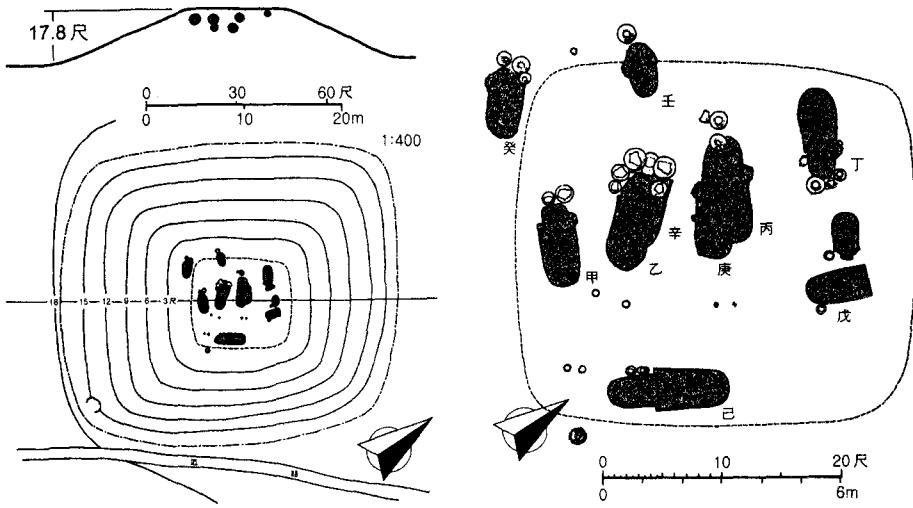
〈그림2〉 함평순촌유적A-3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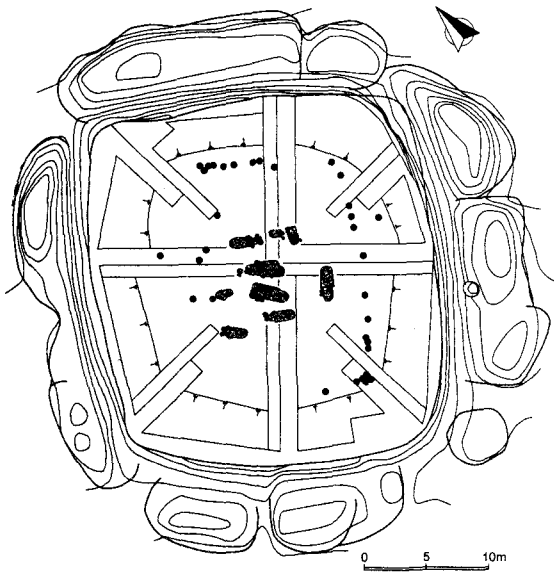
〈그림3〉 함평순촌유적A-32호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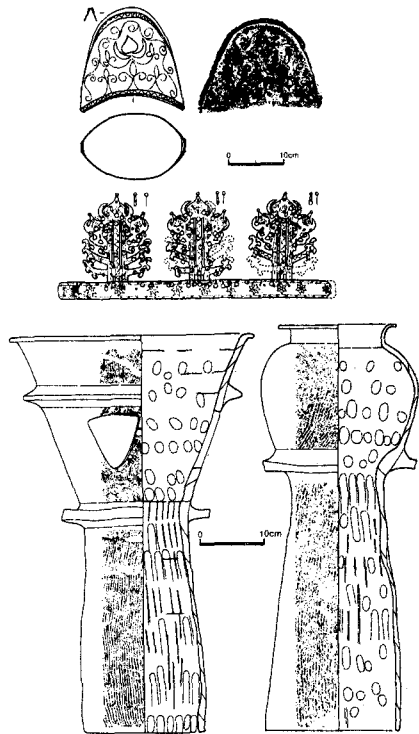
〈그림4〉 함평순촌유적A-39호 토광묘 및 A39-1호추가장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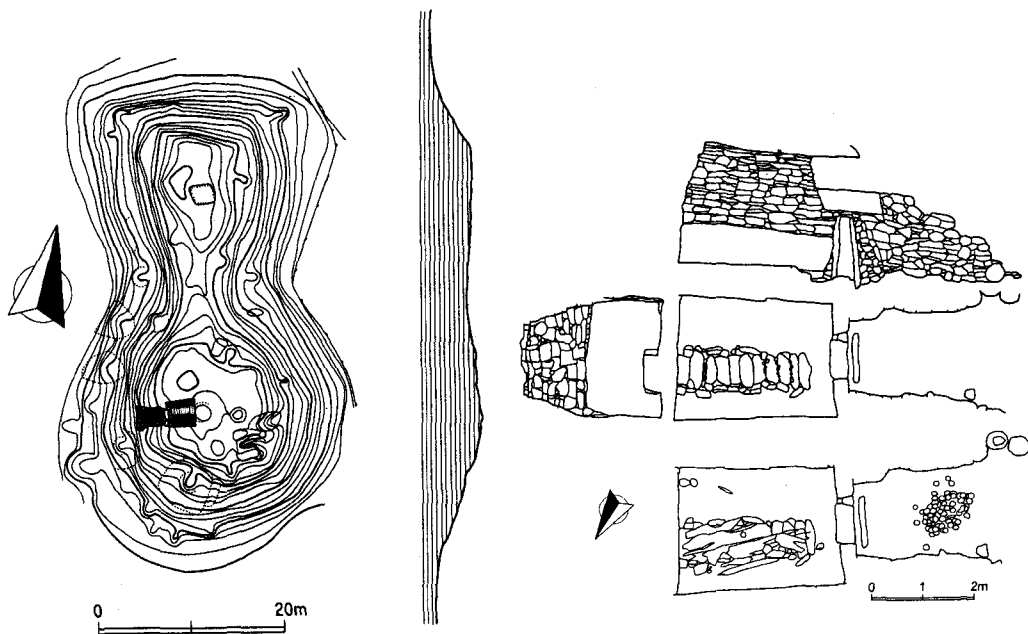
〈그림5〉 나주 신촌리9호분(1917년도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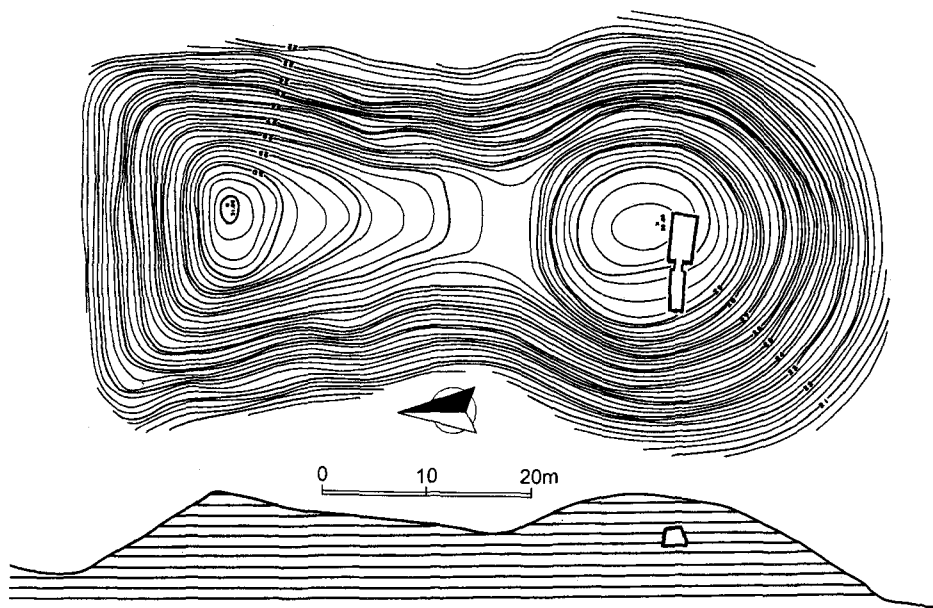
〈그림6〉 나주 신촌리9호분 분구실측도  
(1999년추가발굴, ●:원통형토기)



〈그림7〉 나주신촌리9호분  
금동관 및 관모(상), 원통형토기(하)



〈그림8〉 함평 신태고분 분구 및 석실



〈그림9〉 해남 방산리 장고산고분 분구

## The Yeongsan Basin Tomb during the 5th and 6th Centuries

Lee, Jeong-ho

Yungsan River(榮山江) valley developed into a political structure, which centers around the Bannam(潘南) until the 5th century, when the group cemetery prevailed. However, it's solidarity was sustained at a rather loose stage. And around the end of the 5th century, in the surrounding regions such as Kwangju(光州), Hampyong(咸平), Yonggwang(靈光), Haenam(海南), and etc, excluding Bannam, Stone Chambered Tomb, the outer rites were discovered with other native elements along with keyhole-shaped. It displays the situation of which the governing system centered around Bannam had collapsed and the elite from all over the place had seceded at once. As so, a hypothesis could be brought up as a reason for the collapse of the sovereign power of Bannam.

Paekche(百濟) had been defeated by Koguryo(高句麗) and had lost Hangang River(漢江) region, thus had rapidly declined. This would have weakened the rear foundation of Bannam power. Furthermore, a rather loose government system, in which the group ceremony was not able to advance into a single grave form of one person, would have been one of other elements, which had sped up the collapse of governing power. Eventually, the ancient society, which existed near the Yungsan, experienced the competition for the power reorganization of elite along with the collapse of the governing power that centered around Bannam. And in the state of which this competition had not yet come to a complete end, Paekche had separately executed regional governmentation according to an active and positive governing policy about the region and Paekche's stability of political situation.